

이웃종교 RELIGION

# 故 김 추기경 생가 공원 조성 '논란'

## 경북 군위군 추모공원 계획에 네티즌 부정적

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가 위치한 경북 군위군에 300억원 대의 추모공원 조성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언론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청은 김 추기경의 추모미사가 열린 2월 22일 300억원을 들여 33만㎡ 부지에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청 관계자는 "故 김 추기경의 생가에 추모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희망 안전이 나왔던 것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군청을 방문했을 때 거론했던 안전을 김 도지사가 한

승수 국무총리에게 예산 지원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면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군위군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추기경의 이름을 붙인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건물을 세울 계획은 없지만 교회박물관을 건립해 1~13대 역대 교구장들을 소개할 계획은 있다"며 "교구장들을 소개하는 데에 12대 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유품이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김 추기경만을 소개하지

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모씨는 "추기경님 돌아가시길 손꼽아 기다린 건 아니신지? 이런 행각으로 추기경님 죽음이 헛되어진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300억이 뭇말이야"고 말했다.

전모씨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다 아름답게 가신 추기경님께서 답답해 할 것 같다. 300억으로 군위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나 기자

# 교회 목회자 사레비 기부

## 기독교사회책임 '고통분담' 캠페인

총 125명의 교회 주요 목회자들이 십일조를 제외한 사레비의 5%를 경제위기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김요한 목사)은 2월 23일 '한국교회 고통분담에 앞장섭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 경제위기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평신도들도 고통분담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목회자들이 십일조 이외에 교회에서 받는 사레비의 5%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고통분담에 앞장서고 △교회유지비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하는 대신 구제비는 훨씬 증액하고 해외선교비도 줄이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가급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통해 돕는다 등 3개 항목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어나 기자

# '종교 화합 증진'

## KCRP 정기총회서

"어려운 때일수록 종교계가 희망을 주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근덕)는 7대 종단 공동

회장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0일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종교간 대화와 소통'을 다짐했다.

이날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대표자들은 종교간 화합을 위해 스이웃 종교간 대화와 이해 증진활동(종교·문화 유적지 탐방) △생명과 평화 실현 활동 △사회복지 활동(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다문화 가정 돌봄)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었다.

국제교류사업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KCRP산하(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ICRP)은 △국제종교 세미나 △베트남 라이파이한 지원사업 △종교간 대화순례 △종교 교류 협력 사업 국제사회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기가 만료된 대표회장 최근덕 성공관장이 공동회장단의 추대도 연임하게 됐다. 최 회장은 "새로운 각으로 사업에 임해 종교간 화합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나 기자

# "실업 위기 극복에 종교 역할 절실"

## 강윤구 청와대 수석 조계종복지재단 14주년 법회서 요청

"경제 난국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침체로 모두가 고통 받는 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3% 성장한다면 경제는 불과 며칠 새 -2% 성장으로 바뀌고, 10만여 개가 생기는 일자리도 오히려 20만여 개가 줄 것이라는 전망으로 바뀌며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사진)이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불교계에 도움을 요청해 눈길을 끈다.

강 수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 설립 14주년 기념법회에서 '실업극복 대책과 종교계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강 수석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 심화현상과 최근 노동시장 동

향을 소개하며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직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실직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훈련 지원 △청년층 취업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실업자 수를 최소화 하고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현재 노사에게 요구되는 협력은 물질적 손실 감내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나눔'을 위해 불교계에 도움을 요청해 눈길을 끈다"며 "노사를 넘어서 전 국민의 역량 결집과 단합을 위해 종교계 등의 도덕성을 기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종교계에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합법 기념 법문을 통해 '참다운 보살행'을 통한 복지사업 수행

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가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일체중생을 위한 보살행이 아니다"라며 "모든 중생의 아픔을 대신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다음으로 미루는게 보살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어떠한 경전을 막론하고 부처님의 뜻이 복지 아닌 것은 한 구절도 없다"며 "복지사업은 선행생계(기난하고 방황하고 힘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안아주는 것)·선선법계(선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요익유정(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의 대승보살계를 바꾸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총괄, 근로시장애인종합복지관(다래), 영



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한 '2008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사회복지부장 세영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교계 복지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어나 기자 bohung@buddhapia.com

# 100인 초대전

## 우리문화복지재단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우리문화복지재단(대표 상인)은 '2009 자비·사랑·배움의 나눔'을 주제로 2월 27일-3월 5일 대구 호림아트홀과 엑스코 지하1층 갤러리에서 한국미술 100인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해 10월 재단이 설립된 후 갖는 첫 행사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대표 상인 스님은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최근 경제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회 수익금은 재단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게 될 '엄마의 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곳은 무료 급식, 무의탁노인 생활공동체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섬터로 활용된다. (053)741-7652 김성우 기자

# 골수 기증

## 동대 박하림양

호주 여학생인 동국대 여학생이 골수 기증으로 40대 백혈병 환자를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문학과에 재학중인 박하림(24)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박양은 2월 19-20일 서울 모 병원에서 골수(조혈모세포)를 기증했고, 얻어진 조혈모세포는 어린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백혈병 환자에게 이식됐다.

박양은 2005년 10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를 설립하고, 2008년 10월 경 조직 적합성 항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국내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09년 1월 여학생수 입장을 접고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친한 선배 언니를 백혈병으로 잃은 아픔을 겪은 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골수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작은 실천으로 새 생명과 환자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 "어머니 버팀목 되고파"

## 생명나눔 3월 환우 최장우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3월의 환우로 설암(舌癌)으로 고통받고 있는 최장우(21·사진)군을 선정했다.



대학생인 최군은 2007년 10월, 군 입대 후 전에 염증성으로 생각했던 증세가 심각해져 검사를 받은 후 설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07년 11월 혀의 절반과 입과선을 완전히 절제했으나 안면기형도 발생해 결국 의가사제대 후 복학을 준비하게 됐다. 2008년 암이 재발해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은 후 뇌 정맥으로 전이된 정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전이된 암을 완전 절제하지 못했다. 최군은 수술 후 목

근육의 수축으로 바른 자세가 안 되고, 매일 시행되는 방사선과 항암치료로 구토증상이 생기고 입안이 다혈이 있어 음식섭취도 어렵게 됐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토모테라피라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하지만, 30회 치료에만 3000만원이 필요하다.

최군은 "홀로 저를 키운 어머니를 위해 아서 졸업해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며 "늘어나는 치료비에 포기하고 싶지만 매일같이 병상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면 차마 아픈 표정을 지을 수도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서울메트로 안국역과 3월 5일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고 매일(3일간) 장기기증 캠페인활동을 펼친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어나 기자

비영리 종교법인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공덕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 양화사

근 자원봉사의 집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 양화사 건강원

## 근 자원봉사의 집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 부인성 질환)(아토피, 피부질환)(신경통, 관절질환)(디스크, 혈압질환)(불치, 난치성질환)(회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 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농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 화 사 (자원봉사의 집) 주 지 천 광 합 장